

제주 방언의 대화체 담화에 나타난 억양 연구

— 70대 이상 고령 화자를 중심으로*

고 영 립**

<Abstract>

KO, Young-lim. 2009. Intonation characteristics in conversational discourse of Cheju dialect - case study on speakers older than 70-. In this study,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intonation in Cheju Dialect are analyzed and described by experimental phonetic method(PCQuirerX). Cheju Dialect speakers older than 70 are informants (8 female speakers) and their discourse in conversational situation are used as corpus for this study. 6 Intonation patterns which are frequently realized in Cheju Dialect are presented as typical Cheju Dialect Intonation patterns : / (rising pattern), ∨ (emphasis rising pattern), \ (falling pattern), ⊖ (emphasis falling pattern1), ^ (emphasis falling pattern2), ∩ (emphasis falling pattern3). These patterns play important roles for organization of conversational discourse by mutual influence and by mutual contrast. Speakers use intonation pattern's variability as their expression tool and in terms of discourse strategy. Different aspects of Cheju Dialect Intonation patterns are also analyzed, described and interpreted to reveal dynamism and richness of this dialect, one of Korean dialects, spoken in Cheju Island.

주제어 : Cheju Dialect(제주방언), Conversational discourse(대화체 담화), Intonation pattern(억양패턴), Elder speaker(고령화자), Field work(현지조사), Acoustic analysis(음향분석), PCQuirerX(음향분석프로그램)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A00059).

** 제주대학교 강사

1. 서론

제주방언의 음성적 특이성에 대한 연구는 모음 ‘·’에 대한 통시태적 고찰 또는 모음의 분포양상에 대한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운율현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방언 운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억양 또는 음조에 대해 청각적 인상 방법에 의존하여왔으나 최근에는 실험음성학적 방법이 도입되면서 과학적 분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 방언의 현재의 모습을 객관적 관점에서 기술해야하는 필요성에 의해 시도한 것으로 실제 언어생활에서 발화한 자료를 근거로 제주방언 억양의 실현 양상을 관찰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제주 방언의 억양 구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주 방언의 특징적인 억양의 기본 성격과 형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음성자료를 구성한 후 제보자가 이를 낭독하여 실현한 담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방언화자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연 발화한 구어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의 음성자료에 나타나는 다양한 억양형태를 관찰한 후 귀납적 방법으로 제주방언을 특징짓는 억양 패턴¹⁾들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제주 방언 고유한 억양을 구사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고령 화자들이 대화 상황에서 발화한 음성 자료를 근거로 제주 방언을 특징짓는 억양 패턴들의 실현양상을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문장을 구성하고 전달하기 위한 운율요소로서 말소리의 높낮이를 변화시키면서 일정한 형태로 구현한 것을 억양이라 정의하고 억양 패턴은 일정한 형태를 가진 억양이 반복되어 실현되는 것을 지칭한다.

2. 연구 목적

제주방언의 억양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개별 낱말의 억양을 다룬 정승철(1999)과 박순복(2005)의 연구와 문장유형별 억양의 특징을 다룬 고미숙(200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연구자가 준비한 문어체 자료를 방언화자에게 제시하여 낭독하게 한 후 문맥이 배제된 개별 낱말 또는 개별 문장에서 실현된 제주방언의 억양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낭독체 담화가 아닌 대화체 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일정한 주제에 대한 담화를 구성할 때 실현되는 제주방언 억양의 양상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대화상대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되는 낭독체 담화와 비교해볼 때 대화체 담화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담화를 대화상대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로써 억양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관찰하려는 것이다.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 방언 고유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70대 이상의 고령화자들의 발화를 중심으로 그들이 실현한 억양 패턴들을 특징별로 분류하고 이 고령화자들이 발화한 억양의 특징적인 현상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억양 패턴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주방언 억양이 구어 담화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음을 일러두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음성자료

본 연구의 음성자료는 제주방언의 70대 이상 고령 화자를 제보자로 하여 제보자와 연구자 간의 인터뷰를 녹음하여 마련하였다. 녹음기는 한국산 Forus사의 디지털보이스레코더 FSV-1000을 사용하였고, 소음이 없

는 조용한 방에서 다이핀형의 지향성 마이크를 제보자의 입에서 약 15 센티미터 거리에서 제보자의 상의에 부착한 상태에서 최상의 음질로 설정하여 녹음하였다.

자연스러운 대화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제보자의 일상을 주제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하고 제보자가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구술하도록 유도하였고 제보자에게 친숙한 주제(농사, 날씨, 가축, 가옥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제보자는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기 위한 담화를 실현하였다.

3.2. 제보자

제주방언권을 하나의 방언권으로 간주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제주도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 화자를 대상으로 제보자로 선택하였다. 적어도 3대 이상 제주지역에서 정착한 화자들 중에 치아와 청력 상태에 문제가 없는 제보자로 하였다. 외지 문화와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시 지역의 제보자는 배제하였고 제주시가 아닌 지역에서 그 지역 또는 인근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제보자들을 선택하였다. 여성제보자로 통일한 이유는 남성제보자에 비해 여성제보자는 청년 또는 장년의 시기에 제주지역을 벗어나 생활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제보자는 병역 또는 직업의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제주지역을 떠나 생활하다가 돌아온 경우가 많아서 제보자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음성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²⁾

2) 2009년 현재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의 행정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제보자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의 구체성을 위해 방언현지조사 시점인 2006년 이전의 행정구획 용어인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으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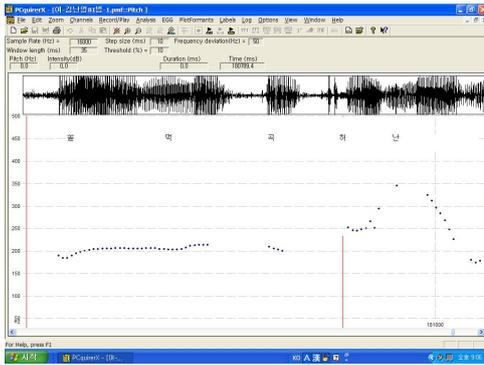
제보자	거주지	나이	녹음분량
1	서귀포시 토평동	87세	16분
2	서귀포시 토평동	81세	18분
3	북제주군 한림읍 웅포리	81세	24분
4	북제주군 한림읍 웅포리	80세	17분
5	북제주군 한림읍 웅포리	75세	25분
6	북제주군 애월읍 괄지리	85세	8분



(출처: 제주역사문화연구소)

3.3. 분석방법

녹음된 음성파일을 음향분석용 프로그램인 PCQuirer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의 실현양상을 다음과 같이 시각적 도형으로 재현한 후(그림 1), 문장을 이루는 각 음절이 실현되는 말높이 F_0 (단위: Hertz)가 시간(단위:millisecond) 축 상에서 실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억양 곡선의 다양한 형태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

“쌀 먹꼭 허난”³⁾
 (“쌀 먹고 하니까”
 (제보자³⁾)

4. 연구 결과와 논의

대화체 담화에서 화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자신이 발화하는 문장의 억양 형태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억양의 문법기능과 표현기능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이 대화체 담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⁴⁾ 본 연구는 제주방언을 구사하는 고령 화자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억양의 실현 양상을 통해서 제주방언 억양의 전형적인 패턴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억양의 문법기능과 표현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음성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억양패턴의 형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구어 담화의 억양은 크게 두 가지 억양 패턴으로 분류하여 기술할 수 있다. 하나는 문장의 기본적 문법 정보를 전달해주는 문미 억양 패턴으

3) 제주방언을 구사하는 고령화자들은 모음 ‘·’를 여전히 발음하고 있다.

4) 임흥빈. 1993.

로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등을 실현할 때 문장의 마지막 억양에 패턴이라 하겠다. 주로 낭독체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할 때 이 문미 억양 패턴이 분석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보자인 방언화자가 연구자가 질문한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서술하는 담화를 실현하였기 때문에 문법적 관점에서의 문미 억양 패턴은 빈번하게 실현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화자가 일정한 주제에 대해 구술하면서 실현되는 억양 패턴으로, 낭독체 담화에서와는 다른 상황 즉 대화 상대자와 대담하는 상황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낭독체 담화의 패턴과는 동일하지 않게 실현된다고 전제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패턴들이다.

구어 담화에서도 일상적인 짧은 대화가 아닌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서술하는 담화의 화자는 일반적으로 대화 상대자에게 논리적 연결성 또는 맥락의 적합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담화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써 화자는 억양패턴의 실현 방식과 억양패턴들 간의 배열 방식을 화자의 의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대화체 담화의 억양은 담화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면서 화자와 담화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화자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문장 일부분 또는 전체를 부각시키거나 대화상대자에게 인상적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실현되는 억양 패턴들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제보자들의 담화가 자유롭게 발화한 구어 담화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문장의 구성 또한 문어체 담화에서처럼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장을 써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담화를 스스로 구성하는 제보자의 의사 또는 의지에 따라 실현된 구어담화에는 돌발 요소들(머뭇거림, (무)호흡휴지, 동어 반복, 문장 끊김 등)이 빈번하게 삽입된다. 이런 요소들의 간섭이 없는 완전한 문장을 발견하고 연구를 위한 예로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구어 담화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긴 발화시간의 음성자료(제보자 녹음분량 참고)에서 제보자 간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공통적으로 실현된 억양패턴들을 PCQuirerX의 음향분석창에서 시각적으로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승패턴>		<하강패턴>	
/	상승패턴	\	하강패턴
∨	강세상승패턴	⌒	강세하강패턴1
		∧	강세하강패턴2
		∩	강세하강패턴3

이 패턴들은 억양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다. 제주 방언 억양이 대화체 담화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처음 시도된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이 분류하고 제시한 억양 패턴들을 통해 제주 방언의 억양이라는 방대한 대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음성자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된 억양의 형태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한 것임을 일러둔다.⁵⁾

각 패턴의 형태를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상승패턴 / :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형태.
- 강세상승패턴 ∨ :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준 후 중간 음절을 낮게 실현한 후 마지막 음절을 상승시키는 형태.
- 하강패턴 \ :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형태.
- 강세하강패턴1 ⌒ : 마지막 음절을 제외한 이전 음절(들)에 강세를 준 후 마지막 음절에서 급격하게 하강하는 형태.
- 강세하강패턴2 ∧ :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지 않고 중간 음절(들)에 강세를 준 후 마지막 음절에서 급격하게 하강하는 형태. 적어도 3 음절 이상의 패턴에서 관찰된다.
- 강세하강패턴3 ∩ :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지 않고 중간 음절(들)에 강세를 준 후 마지막 음절에서 급격하게 하강하는 형태. 적어도 4음절 이상의 패턴에서 관찰된다.

5) 이 억양패턴들이 구어체 담화에 나타나는 빈도에 대한 정량적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으로 향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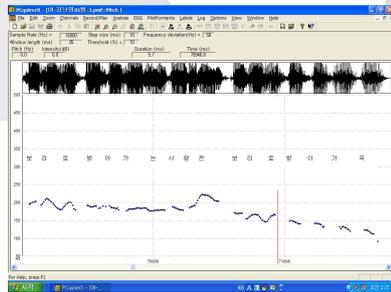
구체적인 예를 통해 기술하기에 앞서 구어 담화에 나타난 문장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문어체 담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어 담화에서는 구성요소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로 문장들이 실현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억양이라는 운율요소가 대신하여 문장을 종결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서술문의 예를 든다면, “-다”식의 종결어미보다는 주로 “-국”(-하고), “-고”(-하고), “-거”(-하는 것이다), “-주(-하는 것이다)”, “-어(여)”(-하는 것이다) 등의 종결어미가 구어 담화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종결어미도 실현되지 않은 채로 억양만으로 문장의 종결을 알리기도 하는 것이 구어담화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제 위의 억양패턴들이 제보자들이 발화한 문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다음의 예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4.1. 상승패턴 + 하강패턴 조합의 예

다음의 세 개의 예문은 억양 패턴이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양상과 문장 구성 요소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다. 낭독체 담화에서와 유사한 억양 패턴들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화자가 담화에 개입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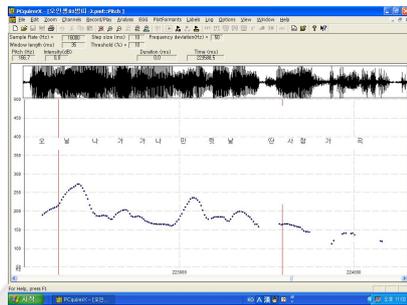
4.1.1. “보리로 받아가는 사람은 보리로 받아가죽”(제보자3) (“보리로 받아가는 사람은 보리로 받아가고”)



이 문장의 마지막 억양 즉 문미억양은 전형적인 서술문의 억양패턴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문장 구성성분과 억양의 분포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4개의 억양패턴이 “보리로”, “반아가는 사람은”, “보리로”, “반아가족”에 각각 실현되어 / / / \ 의 순서로 실현되었다.

4.1.2. “오늘 나가 가나민 뒷날 판사람 가곡”(제보자3)
 (“오늘 내가 가고나면 뒷날 다른 사람이 가고”)

이 문장 역시 문장 구성성분과 억양패턴의 분포가 일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늘”, “나가”, “나가민”, “뒷날”, “판사람 가곡”에 5개의 억양패턴 즉 / / / \ 순서로 실현되어 전형적인 서술문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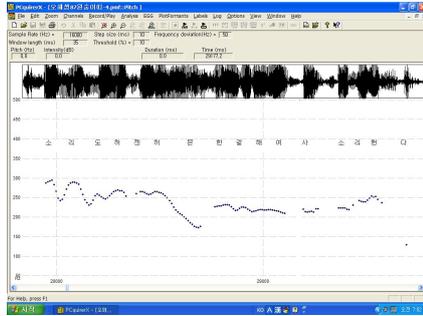
4.1.1.과 4.1.2.의 문장 둘 다 문장 전체가 점진적 하강 패턴에 의해 실현되고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 현상은 화자가 한 호흡그룹 (“breath-group”)⁶⁾ 내에서 문장을 발화할 때 일정한 수의 유의미한 억양 단위로 분절하면서 성대의 진동이 점진적으로 느려지고 따라서 Fo의 값이 낮아지면서 변화의 폭이 작아지는 억양내림(declination)현상으로 음성언어의 보편적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화자의 표현 의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반영된 경우

6) Lieberman, P. 1967.

로 낭독체 담화에서 관찰하기 쉬우나 구어 담화에서는 화자가 담화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억양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다음의 예들을 통해 제주 방언 억양의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관찰하고 기술해보기로 한다.

4.1.3. “소리도 허젠허믄 한결해여사 소리헌다”(제보자1)
 (“소리도 하려고하면 한가해야 소리헌다”)



서술문의 억양 패턴으로 실현된 앞의 두 문장과 비교할 때 이 문장은 매우 다른 억양패턴들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드러난 억양의 형태를 보면 “소리도”, “허젠허믄”, “한결해여사”, “소리헌다”가 □ □ \ \의 순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을 가정하는 내용의 중속절 “소리도 허젠허믄”과 주절 “한결해여사 소리헌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문장은 중속절은 강제하강패턴의 반복(□ □), 주절은 하강패턴과 강제하강패턴의 대비(\ \)로 실현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다룬 음성자료에서는 앞의 두 문장(4.1.1., 4.1.2.)의 예보다는 이 문장(4.1.3.)의 경우처럼 화자의 표현의지가 개입된 억양패턴들이 더 많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 사실은 일차적으로 청각적 분석에서 인지한 것을 이차적으로 PCQuireX 프로그램의 음향분석창을 통해 시각적으로 관찰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명시했듯이 제주방언 억양의 양상들을 관찰하여 전형적인 제주방언 억양패턴으로 보이는 패턴들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제 이 패턴들의 실현방식을 해석해보기로 한다. 분류의 편의를 위해서

상승패턴과 하강패턴으로 나누었고 각 패턴에서 강제패턴들을 형태의 특징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음을 부연한다.

4.2. 상승패턴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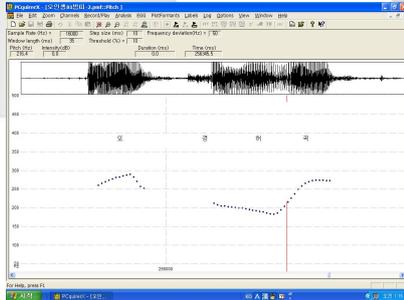
4.2.1. / 상승패턴

상승패턴은 이미 4.1.1.과 4.1.2.에서 제시한 문장들을 통해 기술되었고 이 문장들에서 실현된 상승패턴은 문장 구성 성분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패턴 전체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마지막 음절이 가장 높은 Fo로 실현된 패턴 또는 마지막 음절을 제외하고 다른 음절(들)이 낮은 Fo에서 실현되다가 마지막 음절만 가장 높은 Fo로 실현된 패턴을 상승패턴으로 분류하였다. 억양패턴간의 경계를 이루는 마지막 음절을 제외한 다른 음절에 특별한 강세를 주지 않아서 음향적으로 돌돌림이 일어나지 않은 상승패턴이라 하겠다.

4.2.2. V 강제상승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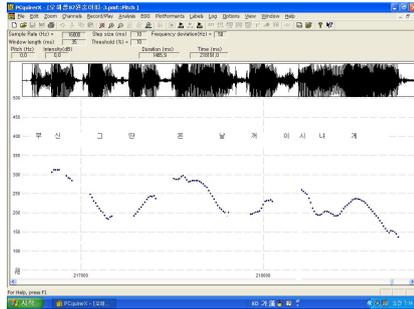
강제상승패턴은 화자가 패턴의 첫 음절을 돌돌리게 함으로써 대화상대자에게 자신의 담화의 일부분을 강조하려고 할 때 실현하는 억양패턴이다. 다음의 예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4.2.2.1. “또 경허죽”(제보자2) (“또 그렇게 하고”)



“또 경허곡”은 문장간 연결 부사로 대화상대자에게 열거하는 내용에 대해 환기시키기 위한 음성적 도구로 첫음절에 강세를 둔 상승패턴으로 실현되었다. 일단 강세를 준 첫 음절이후 다음 음절들에서는 자연스럽게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마지막 음절은 다시 상승하면서 문장의 다음 성분과의 경계를 알리고 있다. 이 예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자면, 연결 부사이면서 첫음절 “또”의 초성 “ㄷ”이 음성적으로 내재적 성질이 강한 소리(파열음, 경음)임을 감안할 때 제주방언 구어담화에서 강세억양패턴의 실현에 분절음이 담당하는 역할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7)

4.2.2.2. “무신 그만 돈 날꺼 이시냐게 ”(제보자1)
 (“무슨 그런 돈이 나올 것이 있겠느냐”)



∨ ∨ ∨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문장으로 같은 억양 패턴이 반복 실현된 경우이다. “이시냐게”에 실현된 문장 마지막 패턴 ∨을 보면 마지막 음절 “게”를 상승한 후 길게 하강한 것이 특징적이다. 동일한 패턴 그것도 강세상승패턴을 3개 연속 실현하여 완성한 이 문장은 첫 음절에 강세를 준 패턴들을 반복함으로써 규칙적 리듬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은 마지막 음절에서 상승 후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문미억양은 화자가 문장 내용에 대해 강한 인상을 주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7) Leon, P. 1993.

이 문장이 실현된 음역을 보면 첫 번째 V (강세상승패턴)이 문장을 시작하면서 확장한 음역 내에서 문장의 나머지 부분들이 실현되면서 문장 전체가 점진적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이 음성언어의 보편적 현상인 음역내림(declination)에 의한 것인지 화자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기로 한다. 동일한 억양 패턴의 연속 작용이 음역 폭의 점진적 감소 속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어 담화의 억양 패턴들이 일정한 규칙 없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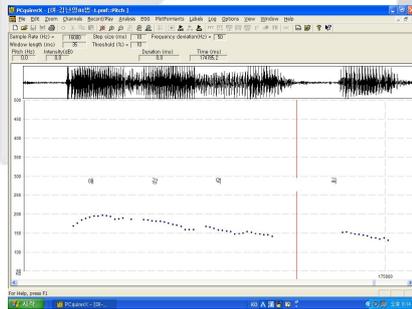
4.3. 하강패턴의 예

제주방언의 구어담화에서 하강패턴은 화자의 표현 의지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는 억양패턴이다. 하강패턴의 다양하고 풍부한 형태를 통해 제주방언 억양이 구어담화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여러 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하강패턴이 한 문장을 종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화자가 그 문장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장치로도 기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들을 통해 형태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기로 한다.

4.3.1. \ 하강패턴

4.3.1.1. “애강 먹족”(제보자3)

(“애를 먹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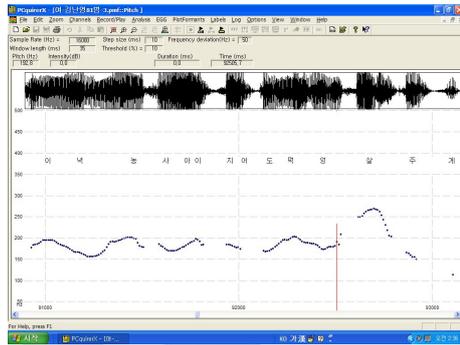


가장 단순한 하강패턴의 예로써 전형적인 서술문 문미억양의 형태이다.

이 하강패턴은 주로 낭독체 담화에서 쉽게 관찰되지만 대화체 담화에서는 화자의 표현의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강세를 주지 않은 하강패턴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음절에서 마지막 음절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실현된 패턴으로 첫 번째 음절에 특별한 강세가 일어나지 않고 후속 음절(들)에서도 역시 강세를 주어 돌돌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강곡선의 경사 각도가 심하지 않다.

4.3.2. ▽ 강세하강패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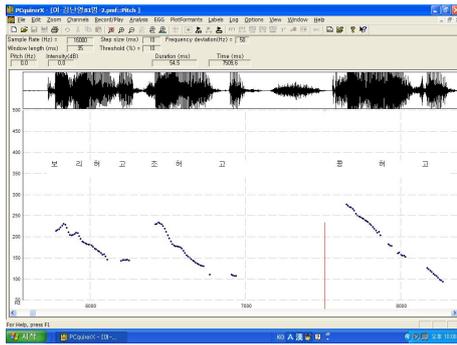
4.3.2.1. “이녀 농사 아이지어도 먹영 살주게”(제보자3) (“자기 농사 안지어도 먹고 살거든”)



이 문장은 \ \ \ \ ▽ 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 화자는“이녀”, “농사”, “아이지어도”, “먹영”을 기본 하강패턴으로 반복 실현하다가 마지막 하강패턴을 첫 번째 음절을 돌돌리게 하는 강세형으로 실현하여 “살주게”에서 반전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장의 대부분을 강세가 없는 하강패턴으로 유지하다 마지막 부분에서 강세하강패턴을 배열하여 반복 후 대비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4.3.2.2. “보리하고 조하고 콩하고”(제보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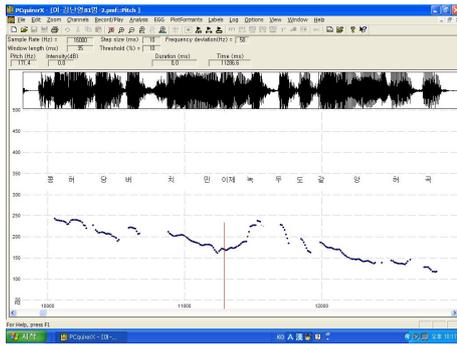
(“보리하고 조하고 콩하고”)



열거하는 세 요소 “보리하고”, “조하고”, “콩하고”를 모두 반복적으로 강세하강패턴으로 실현하여 “ ” “ ”으로 배열하였다. 특히 세 번째 마지막 강세하강패턴은 앞의 두개보다 더 넓은 음역을 사용하여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예 (4.3.2.1.)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방식의 반복 후 대비효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강세하강패턴을 세 번 반복하다가 마지막 패턴에서 음역 확장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대비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강세하강패턴은 바로 직전의 호흡 휴지(pause)와 조합하여 대비효과를 만들어낸 것으로도 보인다. 다시 말하면 휴지로 인해 담화가 일시적으로 끊김으로써 상실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도구로 더 넓은 음역을 사용한 강세하강패턴을 실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억양패턴의 양상을 억양의 형태와 배열만을 기준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운율 요소의 하나인 휴지현상을 함께 고려한다면 구어 담화 억양의 역할을 운율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복합적으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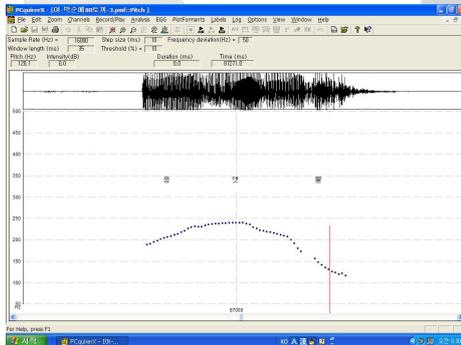
4.3.2.3. “콩허당 버치민 이제 녹두도 갈앙허죽”(제보자3)
 (“콩하다가 벽차면 이제 녹두도 갈아서 하고”)



역시 4.3.2.2와 마찬가지로 강세하강패턴이 연속된 경우로 “ ”의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4.3.2.2와 다른 점은 첫 번째 “ ”와 두 번째 “ ”이 연속되면서 첫음절의 높이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다가 (“콩”, “버”) 세 번째이자 마지막 “ ”의 첫음절(“녹”)의 높이가 다시 첫 번째의 첫 음절(“콩”)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강세하강패턴들이 반복 실현되는 중에 대비되는 문장요소(“녹두”)를 상대적으로 더 돋들리게 하여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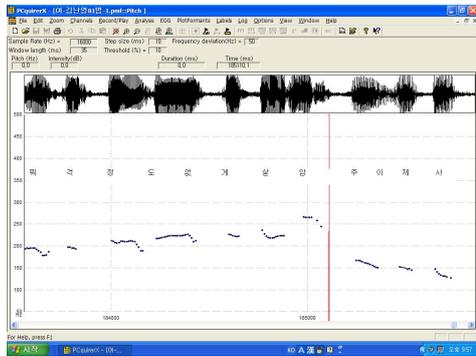
43.3. ㅅ 강세하강패턴2

4.3.3.1. “응얏물”(제보자4)
 (지명 고유명사)



이 강제하강패턴은 첫음절은 상대적으로 낮게 실현하고 중간음절을 흔들리게 하는 패턴이다. 이 억양패턴 \wedge 은 적어도 3음절로 이루어진 억양패턴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 \wedge 이 전달하는 음향적 효과에 대해 \backslash 과 \neg 과 비교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3.3.2. “뭐 걱정도 없게 살아주 이제사”(제보자3)
 (“뭐 걱정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이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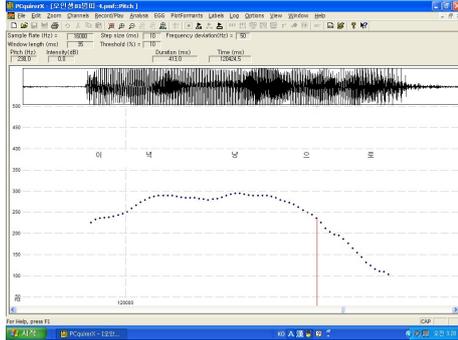


이 문장은 전반적으로 점진적 상승 억양의 형태를 이루다가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급격한 하강의 형태를 보이면서 $/ \wedge \backslash$ 의 순서로 배열되었다. 문장은 “뭐 걱정도 없게”, “살아주”, “이제는”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걱정도 없게”는 점진적 상승패턴 $/$, “살아주”는 강제하강패턴 \wedge , “이제는”은 하강패턴 \backslash 으로 실현되었다. 점진적 상승의 형태인 패턴 $/$ 을 실현한 직후 “살아주”의 \wedge 를 실현하였고,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강세가 없는 하강패턴으로 실현하여 문장 전반부와의 극적인 대비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이제사”는 부언된 부사구로써 낮은 F_0 로 실현되고 있다.

4.3.4. ∩ 강제하강패턴3

4.3.4.1. “이 녀냥으로”(제보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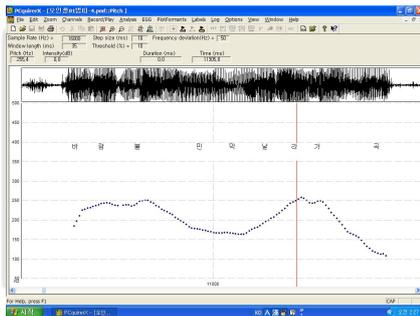
(자기대로)



∩이 3음절 이상의 억양패턴에서 실현된다면 ∩은 4음절 이상의 억양패턴에서 많이 실현되는 강제하강패턴이다. 이 예에서는 제1음절은 낮게, 제2음절-제3음절은 높게, 그리고 제4음절-제5음절은 다시 낮게 실현되고 있다.

4.3.4.2. “바람불면 막 날라가죽”(제보자2)

(“바람불면 마구 날라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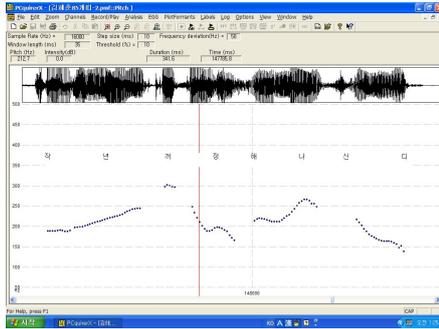


C I

두개의 ∩이 연속 발화된 경우이다. 같은 패턴을 연속 발화하고 있지만 자세히 검토해보면 첫 번째 ∩(“바람불면”)와 두 번째 ∩(“막날라가죽”) 사이에는 분명히 사용 음역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복효과

와 대비효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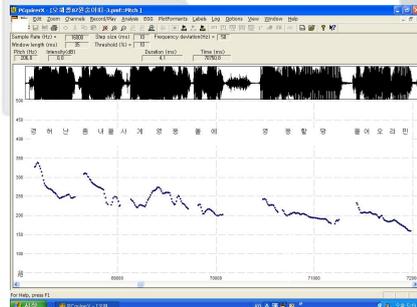
4.3.4.3. “작년꺼정 해나시난”(제보자5)
 (“작년까지 했으니까”)



역시 두개의 \cap 이 연속 발화된 경우이다. “작년꺼정”과 “해나시난”에서 가장 높은 음절은 “꺼”와 “나”에서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은 같은 억양패턴을 실현하면서 가장 높은 음절로 실현된 이 두 음절의 공통점은 바로 파열음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겠다. 첫 번째 \cap 의 “꺼”보다 두 번째 \cap 의 “나”는 분명 낮게 실현되었음에도 화자는 반복효과를 주기위한 도구로써 공통된 음성자질을 가진 음절을 돌돌리게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4.3.5. 강제하강패턴 반복의 예

“경허난 줄너들사게 영등들에 영등할망 들어오라민”(제보자1)
 (“그러니까 잠너들이야 영등달에 영등할머니가 들어오고나면”)



연속하여 다섯 개의 강세하강패턴1이 실현되었다(□ □ □ □ □). 같은 패턴이 연속 실현되면서 점진적으로 패턴의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음성언어의 억양내림(declination)현상으로 보인다.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첫 번째 강세하강패턴의 첫 번째 음절을 가장 높게 실현하고 마지막 강세하강패턴의 첫 번째 음절을 가장 낮게 실현하고 있는데 문장 전체에 억양내림 속에서 첫 번째 음절 간의 Fo도 점진적으로 하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음절을 부각시키는 강세하강패턴을 하나가 아닌 5개를 연속하여 반복하면서 부각시키는 음절의 높이 Fo를 낮추어가는 대비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예 또한 반복 속의 대비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4. 대화체 담화 억양의 특징

제주 방언 화자가 대화 상대자 즉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하거나 또는 일정 주제에 대해 구술할 때 문장의 일부분을 강조하거나 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실현하는 강세 억양 패턴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억양 연구에서 화자에게 제시된 문장을 낭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반면, 연구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서술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현된 대화체 담화에서는 화자의 의지에 따라 문장의 일정 부분에 강세 억양 패턴이 사용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화자는 대화 상대자와의 대화 맥락과 자신이 구성하는 담화 맥락 속에서 문장을 실현하면서 자신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문장의 일부분 또는 문장 전체에 강세 억양 패턴을 실현하게 된다.

대화체 담화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억양 패턴들이 다양하게 실현되고 배치된다. 그렇다고 해서 화자는 아무렇게나 억양 패턴들을 배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화자는 담화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음성전략으로 억양패턴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화체 담화에서 두 개 이상의 억양 패턴이 연속적으로 실현되면서 나타나는 억양 패턴의 조합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화자는 자신이 부여하는 관심의 정도와 표현 의지의 강도에 따라서 연속 실현되는 억양 패턴에 변화를 주면서도 억양 패턴들 사이에 무질서하지 않게 일종의 연계성을 두고자 하는 것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화자 스스로 판단하기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의 부분에 강세 억양 패턴을 실현하기도 하고 같은 형태의 패턴을 연달아 실현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유사한 억양패턴들을 연속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대화상대자에게는 자신의 담화를 정돈된 상태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비효과를 위한 도구를 배치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성격이 상이한 억양패턴들을 연속 배치함으로써 청각적으로 돌돌리게 하여 대화상대자에게 화자가 전개하는 담화의 일정 부분을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5. 결론

제주 방언 화자가 자연스럽게 발화한 대화체 담화에 실현되는 억양을 몇 개의 패턴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더라도 제주방언 억양의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양상을 모두 기술해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이 가장 생생하게 실현되는 자연 발화상태의 담화에 나타난 억양패턴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했고 그 패턴들을 통해서 문장에서 실현되는 억양의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하였다. 70대 이상의 고령화자가 대화체 담화에서 실현한 제주 방언의 억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방언의 특징적인 억양패턴 중에서 본 연구에서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한 패턴들은 / (상승패턴), ∨ (강세상승패턴), \ (하강패턴), ▾ (강세하강패턴1), ∧ (강세하강패턴2), ∩ (강세하강패턴3)이다. 이 패턴들이 제주 방언의 억양 체계를 대표한다고 단정해서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주방언의 구어 담화를 특징짓는 억양의 중요한 형태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 억양 패턴들은 구어 담화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써 화자는 패턴간의 상호 배열 방식(반복과 대비)을 통해 문장을 구성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이용한다.

셋째, 연속된 억양패턴 간의 음역을 차별화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일정한 억양패턴들이 반복 실현되면서 동시에 대비효과를 위한 수단으로 음역의 차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넷째, 분절음과 휴지현상(pause)이 억양패턴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 둘의 억양패턴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상을 해석할 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을 실현하고 보수형 억양을 실현한다고 간주되는 고령화자들이 대화체 담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억양패턴들을 부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모든 억양패턴들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주 방언의 구어 담화에 나타나는 억양의 특징적 양상을 조명하기 위한 시도로써 본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부족한 점은 이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를 지속하면서 보완하고 제주방언 억양의 다양하고도 풍부한 실현 양상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과제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정희. 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국어연구소. 2002. 《음성언어자료와 국어연구》. 월인.
- 고미숙. 2005.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34. 언어과학회.
- 김용진. 2007. 《사회언어학적 코퍼스 분석의 실제》. 올린책상.
- 박순복. 2005. <제주 방언의 낱말 악센트>. 《말소리》 55. 대한음성학회.
- 박지혜. 2002. <대화체와 낭독체의 운율에 관한 연구>. 《말소리》 43. 대한음성학회.
- 성철재. 1998. <한국어 대화체 음성의 운율 분석-낭독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글》 239. 한글학회.

- 송상조. 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신지영·차재은. 2003. 《우리말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이상규. 2003. 《국어방언학》. 학연사.
- 이주행. 2005. 《한국어사회방언과 지역방언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호영. 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이호영. 1997. <국어 머리 억양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33-34. 대한음성학회.
- 이호영. 1999. <국어 핵억양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38. 대한음성학회.
- 이호영. 2002. <국어 억양의 상승과 하강현상>. 《한글》 257. 한글학회.
- 임홍빈. 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3/1.
- 정승철. 1988. <제주도방언의 음운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 정승철. 1999.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 홍윤표 외. 2002. 《한국어와 정보화》. 태학사.
- Leon, P. 1993. *Precis de phonostylistique*. Nathan. Paris.
- Lieberman, P. 1967. *Intonation, perception and language*.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 이 논문은 2009년 10월 19일에 투고되어 2009년 11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9년 12월 5일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되었습니다.

